

데스크 시각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정부가 최근 의대 정원 2000명을 대학별로 배정했다. 전남대와 조선대를 비롯한 비수도권 의대에 증원분의 82%를 '물뽕'했다. 전남대(배정 인원 200명)와 조선대(150명) 정원은 서울대(135명)보다 많다. 서울과 수도권 정원 배정이 20%에 그치자 고3 수험생, 학부모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정도다. 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그만큼 파격적이다. 의료인력 고갈에 신음하는 비수도권 지방을 고려한 정책인 것만은 분명하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 유입 기대

전남대 의대(현 정원 125명)는 올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72.8%를 적용해 신입생 91명을 선발했다. 이 기준을 단순 적용하면 전남대는 2025학년도에 올해보다 54명 늘어난 총 145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 57.6%를 적용해 올해 의대 신입생 72명을 뽑는 조선대(125명)는 2025학년도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의대 공화국으로 통하는 대한민국의 비수도권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문호가 더 넓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결사항전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

의대 증원과 지역 의료 살리기

원을 밀어붙인 이유는 '낙수효과' 때문이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 의사가 넘쳐나면 자연스럽게 필수의료 분야에도 의사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이 한참 멀다. 필수의료,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부문의 의사 고갈 사태가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고난도·고위험 분야'지만 돈은 안 되는 영역이다. 실제 뇌동맥류 수술의 의료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금액)는 2022년 기준 248만원인데 고 성형(290만원) 보다 낮다. 심지어 응급실 심폐소생술 의료가(건보공단)는 15만원 선이다.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다. 광주에서 분만 병원은 줄잡아 4곳, 전남의 시 단위 지역에도 분만산부인과가 손꼽을 정도로 적은 이유다. 광주지역 대학병원의 한 산부인과 의사는 "산부인과는 경우 턱없이 낮은 의료가(건보공단)에 자칫 의료사고라도 나면 소송까지 감내해야 한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생계는 물론 미래가 불투명한 필수의료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하다"고 잘라 말한다.

국민의힘 조영희 위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전국 의과대학 본과 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을 묻는 결과 '낮은 의료가(건보공단)'가 근본 원인이라고 응답한 의대생이 49.2%로 가장 많았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19.9%), 과도한 업무 부담(16.2%) 등도 꼽혔다. 의대생 2000명 숫자에 가려진 현실이다.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의대 정원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대중요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0.7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압축기에 광주·전남 지역에서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가 지역에 뿌리내리길 바

라는 것은 공상적이다. 김현지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진료교수는 '포기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들려준다. "병원의 수입은 수가와 수요로 결정되고 결국 병원은 환자가 있어야 유지된다. 병원 역시 환자는 수요가 있어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다. 정부가 아무리 수가를 올려도 수요가 없다면 수입이 유지될 수 없다."

의사 지역정착 방안 마련해야

그의 진단은 특히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전남지역에 유효하다. 필수의료 분야가 붕괴된 전남지역 의료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1989년 도입했다 폐지한 진료권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할지도 모른다. 의료보험증에 표시된 중진료권에서 진료 받도록 하고, 다른 진료권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제도다. 이 제도는 환자의 대형병원 이탈을 막아 지역의료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했으나 국민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결국 의료개혁은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할 사안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축으로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폭탄보다는 정밀 타격을 위한 요격 미사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턱대고 의대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필수·지역 의료 분야 근무를 조건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주는 등 구체적인 선명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완결형 종합 치료가 필요하다. 의대 증원이 단지 의사수만 늘리는 졸속책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社說

전남도, 글로벌 고향사랑 캠페인 물꼬 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모금액은 약 650억원(건수 약 52만5000건)으로 목표치를 넘어섰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남도가 143억원을 모금해 1위를 차지했고,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담양군이 22억원으로 1등이었다.

전남도가 해외에 거주하는 향우,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고향사랑 실천운동을 본격 추진해 눈길을 끈다. 도는 최근 중국 광저우와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고향사랑 캠페인을 전개했다. 중국호남향우회는 광저우와 상하이를 비롯해 텐진, 칭타오 등 13개 지부에 1500여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국향우회 관계자들은 고향사랑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얼마 전에는 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정광일 사무총장이 전남도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사랑애(愛) 서포터즈'에 많은 해외 향우가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2013년 창립된 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는 미국, 중국, 일본 등 27개국 200만 명의 회원이 참여해 장학사업 등 고향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호남향우들은 매년 10월 4일을 전후로 '해외 호남인의 날'을 정해 광주와 전남·북을 방문, 고향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각 지자체의 유치 활동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지역 지자체들도 세계 각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호남 향우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참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기대 크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에 광주교육시민 협치진흥원이 문을 열었다. 그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진흥원은 학교, 학부모, 교육활동가 등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모델을 구현하게 될 기관이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와 각 구청, 시민,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해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종의 거버넌스가 구축된 것이다.

진흥원 개원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시민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든다는 데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진흥원 개원에 앞서 설립추진단을 꾸리고 1년 동안 만반의 준비를 했다. 진흥원은 산하에 시민협치기후환경과와 지역교육협력과, 학부모참여과 등 3개 실무 부서와 늘봄지원센터, 대안교육지원센터, 광주학부모지원센터 등 3개의 센터를 운영한다. 실무 부서와 센터를 통해 90여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대안교육, 돌봄과 방

과후 활동을 총괄하는 늘봄지원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꼼꼼하게 챙기기가 힘든 분야인데 진흥원이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들여다보으로써 빈틈없고 촘촘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진구 진흥원 원장은 "이제부터 광주의 모든 마을이 교실이 된다"고 말했고 이 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늘봄학교, 기후환경, 대안교육 등 목직한 교육 현안을 맡게 된다"며 진흥원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가 꾸려진 만큼 기대가 크다. 기대가 크다는 것은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실망감도 크다는 얘기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들은 진흥원의 성공을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은 하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야 한다. 5개 자치구에 교육협력지원센터인 '이음센터'를 개설해 허브 역할을 맡긴다는 데 이음센터의 운영이 진흥원 안착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無等鼓

최근 한국을 찾은 미국 메이저리그 LA다저스 소속 오타니 쇼헤이로 인해 '육각형 인간' 신드롬이 회자되고 있다. 육각형 인간은 외모와 성격, 학력, 집안, 직업, 자산 등 여섯 개 축의 육각형 그래프가 완벽을 이룬 것으로, 어디 하나 부족하지 않은 완벽형 인간을 뜻하는 신조어다.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할 때 기준 축이 딱 차 완벽한 모습을 보이면 정육각형이 된다. 그래서 육각형을 종종 완벽의 의미로 쓴다. 보통 기업이나 스포츠 구단이 직원이나 선수들에 대한 실적(성적)·능력 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육각형의 헤사곤 그래프에서 비롯됐다.

성공 외모와 성격, 집안 등 '넘사벽' 조건에 대한 방어기제로 육각형 인간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휴스지' 성공 신화는 더는 현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완벽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슬픈 자화상을 반영한 신조어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육각형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듯하다. 육각형 정치인은 청렴과 도덕성, 정치적 소신, 균형감각, 정치적·정책적 비전 제시, 민심을 헤아리는 폭넓은 소통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정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이런 육각형 정치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당에서는 '진명' (진 이계명), 국민의힘은 '친윤' (친 윤석열)과 '친한' (친 한동훈)이 우선시되면서 각종 잡음이 일었다.

과연 완벽한 정치인들을 공천했는지 양당에 묻고 싶다. 공천은 끝났고 총선은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다. 4월 10일 당선된 후보자들은 향후 4년간 특정인에 대한 충성이 아닌 국민을 살피고 청렴과 도덕, 정치적 소신을 지켜나가는 육각형 정치인이 되기 위해 매진해줬으면 한다.

/최권일 정치총괄본부장 cki@

은펜칼럼



임명재 약사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를 정해놓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두고 보면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선택이든 결정하고 투표장에 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투표 결과에 의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선택했으니 책임지면 될 것이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투표도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피해야할 선택이다. 언론에도 나오고 주변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꼴피가 싫다. 모두가 거짓말들이고 신뢰할 수가 없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부 자기 욕심에 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투표 결과에 의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선택했으니 책임지면 될 것이니까"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선 안된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리고 정치가 나와 무슨 관련이 있겠어, 나는 매일 열심히 내 일만 하고 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총선 투표장에 가야하는 이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외환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 대통령이 통치를 잘못했고 그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은행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감독을 잘하려면 법의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했고, 그러한 법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려는 기관이 구성되어 있어야 했고 그러한 기관을 구성하고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잘 훈련되고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전혀 그러지 못했다.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정부의 무능함,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할 국회의 방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는 환란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다.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국민들이 누구나 힘든 시기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대기업들도 부도가 나고 수많은 국민들이 직업을 잃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겪고 있다. 전쟁의 참상을 어찌 실감할 수 있을까 만만 하고 그 전쟁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설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외교력의 부재로 인해 결국 전쟁이 났고,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는 수많은 생명을 허무하게 잃었

고 국토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파괴되었다. 그 후손들이 감내해야할 고통과 희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좀 더 현명했다면, 고려시대의 서희처럼 현명해서 러시아에 차라리 양보하더라도,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 지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제대로된 전략을 세웠더라면 지금의 전쟁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두고두고 생각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삶과 이익과 안녕이 직결되는 것이 정치이다. 온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것이 정치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수출이 막히고 내수가 부진해서 경기가 곤두박질치고 있고, 미국의 압력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시절은 저물어가고 모든 것이 미국에서 생산해야 하니 우리 기업의 국내 고용창출은 미미해져 간다. 대파괴이 대통령에게만 저렴하고 나머지 99%의 국민에게는 버거운 가격으로 느껴지고 있다. 이 모든 게 다 정치행위의 산물이다.

투표해야 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들은 권력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의 정치생명을 끊을 수도 연장할 수도 있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이번엔 일깨워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손에 의해 여기까지 왔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기 고



이선 이강하미술관 학예실장

작년 11월 캐나다 북극(킨가이트, 누나부트 주주)에 다녀왔다. 2023년 열렸던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캐나다 파빌리온이 인연이 된 방문이었다. 당시 이강하미술관에서 열렸던 '신화, 현실이 되다' 전시는 이누이트 민족 예술의 전통성과 고수성을 아시아와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때 전시된 이누이트 작가의 작품을 보며 그들이 어떤 환경과 삶을 부여받았는지 궁금해졌다. 캐나다 북극의 자연 환경과 인간,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누이트 민족과 예술가들을 만나고 싶다는 꿈은 '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에 선정되면서 현실이 됐다. 파빌리온 전시로 인연을 맺었던 캐나다 대사관의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지원 프로젝트에도 선정됐다.

우리의 여정은 멀었다.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천공항→미국 로스앤젤레스→캐나다 토론토→오타와

북극의 신화, 우리의 현실이 되다

그리고 최종 킨가이트까지 총 아홉 번 비행기를 갈아타며 목적지 북극에 도착했다. 바다로 둘러싸인 킨가이트의 자연 환경은 가혹하게 추웠다. 북극 눈바람은 모든 것을 운전하지 못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집, 사람, 바다, 산, 무덤까지 본연의 모습과 색을 감추어버린다.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과 문을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누구도 다가오지 못하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다. 그 틈을 비집고 산에 살던, 배고픔에 지친 북극곰이나 토끼가 내려와 창문을 내다보고 주파수 신호를 잃은 고래나 벨루가가 다가오기도 했다.

어쩌면 우리가 마주 한 모든 이야기들은 신화인지 구전인지 소설이었는지 모를 이누이트 예술가들의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없던 대화들이었다. 그들의 몸속에 흐르는 이누이트 선대들의 피와 눈을 통해 전해진 이야기들은 한국에서 킨가이트까지 먼길을 떠나는 우리에게도 전해졌다. 서로의 이야기를 언어가 아닌 몸짓과 그림, 감각으로 들려주며 우리가 예술을 통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서로의 연락처나 이메일, 집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뜨겁게 연결되어 있었다.

마지막 날 킨가이트 시장님 가족의 배움을 받으며 빙하로 끊인 이누이트 전통 검은 차와 빵을 먹었다. 과거 이누이트 역사를 전해 들었을 때 장부의 출렁이며 눈앞에 펼쳐진 바다와 설경을 잊을 수 없다. 킨가이트의 마

지막 밤, 어둠에 잠긴 눈산과 눈바람소리, 그리고 우리를 환대해주었던 이누이트의 눈빛과 바다를 기억한다.

북극의 경험은 '북극의 신화, 소멸의 저항:한국-캐나다 북극 리서치 결과 전시회'(5월 19일까지)로 구현됐다. 캐나다 대사관의 지원을 받고 캐나다 웨스트바빈 에스키모 쿠파페이트브 기관과 협력해 추진한 전시로 한국과 캐나다 양 국가 간의 국경을 허물고 새로운 예술의 시도와 접점을 만들어 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북극으로 가는 여정에서 만났던 캐나다 여러 도시의 문화 공간 및 기획자, 예술가들과 서로의 문화, 예술세계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나아가 한국과 캐나다의 더 많은 국제 문화교류 방안에 대한 발전적인 전망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북극 킨가이트의 이누이트 공동체와 한국 광주의 작가와 기획자가 예술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가 될으로써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성장했다. 이 공유된 경험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서로 다른 두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강하미술관은 올해 역시 캐나다 대사관과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인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누이트의 역사와 삶과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 초대장을 보낸다.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장 崔宰豪, and contact information for circulation and advertising.